

GREEN FINANCE FOR 2050 NET ZERO

한국의 2050 배출제로 달성을 위한 녹색금융



임 대 응 한국대표

DAE-WOONG.LIM@UN.ORG

010 3211 0430



UNEP FI 소개



○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UN과 금융기관간 Public Private Partners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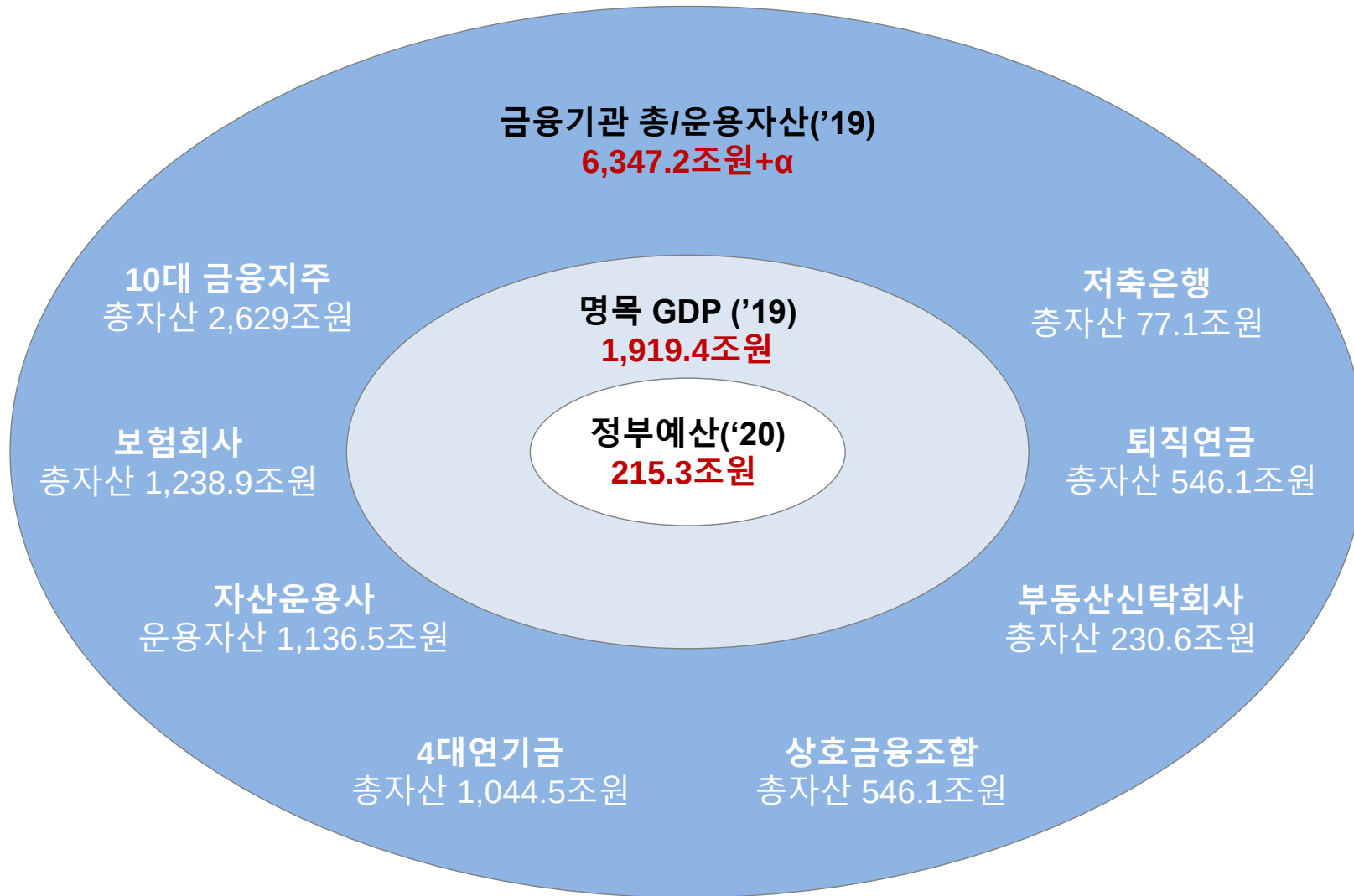
- 전세계 330여 개 은행, 보험, 투자기관 참여
- 지속가능금융 원칙, 이니셔티브, 도구·사례 개발, 역량강화 등

○ 국내 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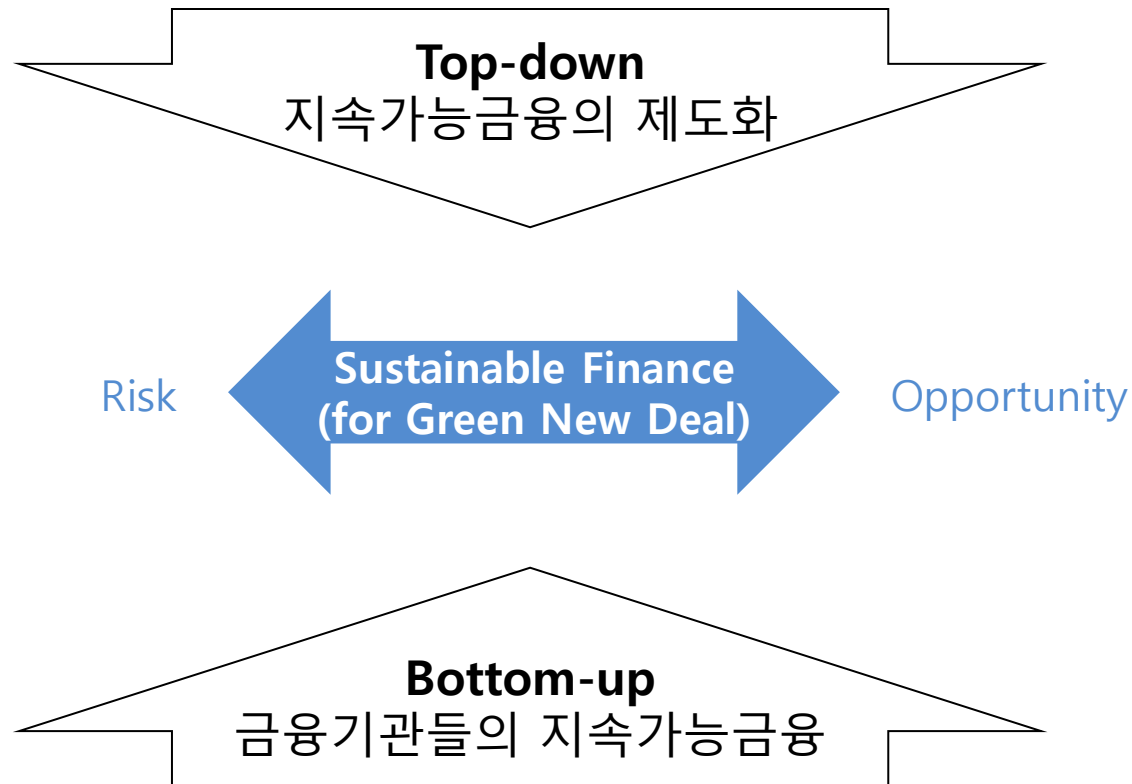
- **회원사**: 신한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DGB금융그룹, KB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삼성화재, DB손해보험, 신한생명
- **지지기관**: 금융감독원,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MOU**: 국회예산정책처



왜 금융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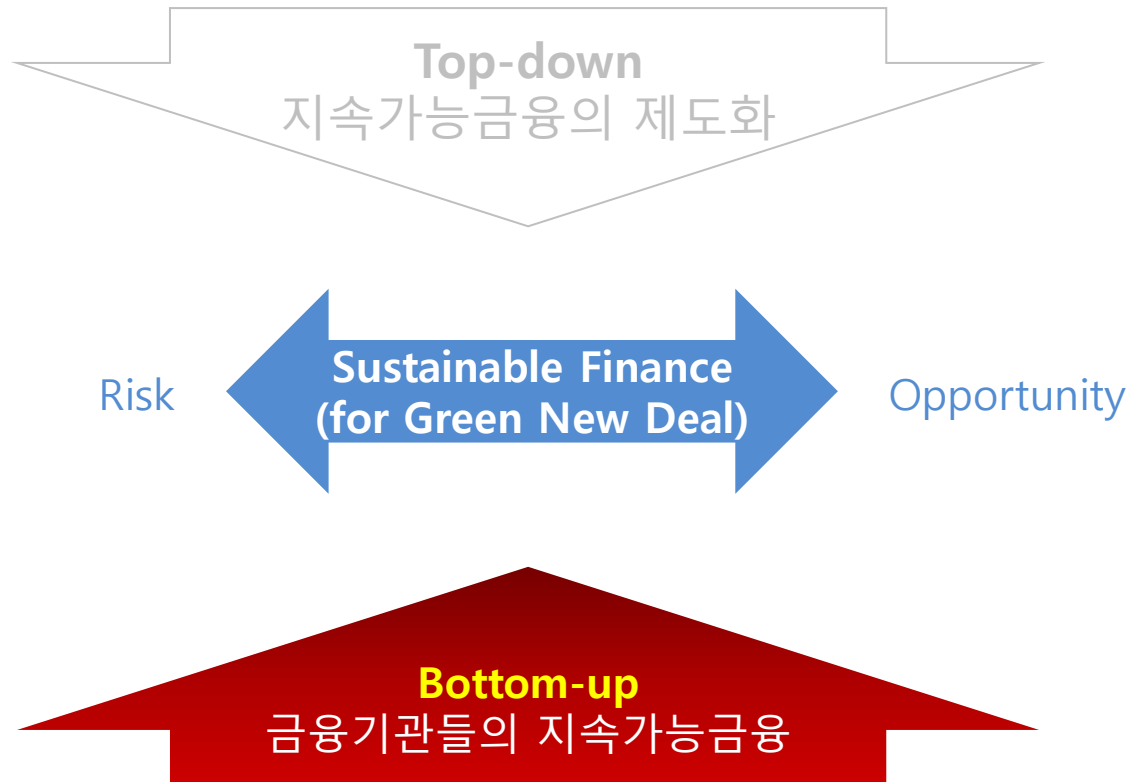
Today's topics



UNEP
FINANCE
INITIATIVE



PART 1. Bottom-up



- 지속가능금융 정책 수립
- SDGs 관련 금융 서비스 확대 (Green Taxonomy)
- ESG 리스크 관리
- 자발적 지속가능금융 원칙의 제정



1. 지속가능금융 정책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환경, 사회, 기후변화,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정책을 제정하고 있으며, 크게는 **리스크 관리**, **투자 확대**의 두 축을 가지고 있음

Goldman Sachs Environmental Policy

Overview.....	1
Our Business.....	3
I. <u>Environmental Market Opportunities</u>	3
A. Advisory, Financing, Investing and Market Making	3
B.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5
C. Global Investment Research.....	6
D. Center for Environmental Markets.....	7
II. <u>Environmental and Social Risk Management</u>	9
A. Process and Scope.....	9
B. Sector Guidelines.....	10
C. Cross-Sector Guidelines	12
D. Climate Change Guidelines	13
E. Training.....	14
Our Operations and Our People.....	15
I. Our Operations.....	15
A. Corporate Services and Real Estate.....	15
B. Technology	16
II. Our People.....	18
Implementation and Governance.....	19

**투자 기회는
적극적으로 찾고,**

**환경사회 리스크는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JPMorgan Chase & Co. Environmental and Social Poli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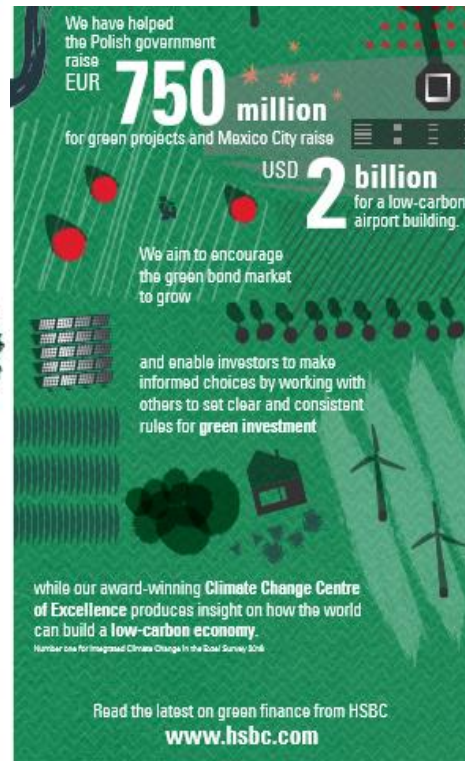
- 1.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 리스크관리 접근법
 - 멤버십 및 의지
 - 환경사회 리스크 방침의 범위
 - 금융거래 금지 분야
 - 금융거래의 검토
 - 환경사회 검토
 - 추가 검토가 필요한 민감 업종 및 활동
 - 검토 단계
 - 포트폴리오 검토
- 2. 기후변화**
 - 기후방침 관련 관점
 - 기후관련 사업기회
 - 금융거래 및 포트폴리오 검토와 기후변화
 - 기후자산위험(Carbon Asset Risk)의 리더십
 - 정보공개와 인게이지먼트
- 3. 산림과 생물다양성**
 - 산림 관련 금융거래와 추가 검토
 - 산림관련 금융거래 금지
 - 자연 분야 투자 기회
- 4. 인권**
 - 토착민
 - 강제노동과 인신매매
- 5. 운영 자원 관리**
 - 글로벌 에너지 및 지구온난화가스 감축
 - 종이 구매
 - 물 및 폐기물 관리
 - 직원 인게이지먼트
- 6. 실행, 인게이지먼트, 보고**
 - 자원, 교육훈련 및 실행
 - 인게이지먼트
 - 보고 및 검토
- 7. 거버넌스 구조**



2. SDGs 관련 금융 서비스 확대

저탄소 회복탄력성 있는 경제 사회를 위해 2030년까지 \$93 trillion의 투자가 필요하며, 금융기관들은 녹색채권 발행, 여신·투자 확대, PPP, IPO 등의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음

HSBC - Financing the Green Economy



HSBC

HSBC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전세계 녹색경제(Green Economy)에 대응하는 녹색금융 확대중

- ① 2030년까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필요한 글로벌 투자는 \$93 trillion
- ② HSBC는 풍력, 태양광, 지속가능한 폐기물관리 시설 관련 €500 million 규모의 녹색 채권 발행
- ③ 폴란드 정부를 위해 €750 million 규모의 녹색 프로젝트 자금조성 지원
- ④ 멕시코시티의 저탄소공항 건설을 위해 \$2 billion 자금조성 지원 등

Source: <http://www.hsbc.com/tag/green-finance>



2. SDGs 관련 금융 서비스 확대

CitiGroup은 \$100 Billion Environmental Finance Goal (2014-2024)을 세우고 환경분야 투자 및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매년 그 성과를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

CitiGroup - \$100 Billion Environmental Finance Goals

\$100 Billion Environmental Finance Goal: Financial Highlights, 2014-2018

\$95.3B

toward the \$100B Environmental Finance Goal*

RESULTED IN



\$6.7B

in sustainable
transportation



\$18.5B

in public finance



\$11.1B

in water quality
and conservation



\$61.3B

in renewable
energy



\$16.0B

in green bonds**



\$4.1B

in green building

CitiGroup은 2014년부터
10년간 다음의 환경분야에
\$100 Billion의 환경금융을
하기로 선언

- ① 재생에너지
- ② 에너지효율
- ③ 지속가능 수송
- ④ 물의 질 및 보전
- ⑤ 클린 테크
- ⑥ 그린 빌딩

* Transactions fall within multiple categories of reporting.

** Includes green portion of sustainability bonds when information is available.

Source: <https://www.citigroup.com/citi/sustainability/100billion.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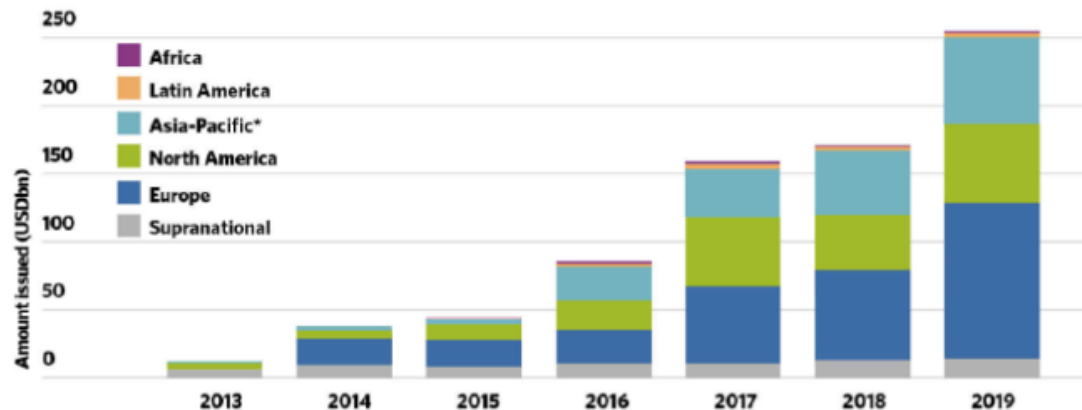
2. SDGs 관련 금융 서비스 확대

녹색채권은 MDBs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나, 금융기관, 기업, 지자체, 정부 등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은 이를 '생태적 문명화(중국판 그린뉴딜)'의 핵심 도구로 활용하고 있음

녹색채권 – 100% 녹색 기술, 사업에 투자하는 채권

Global green issuance 2013 - 2019

Global green bond and loan issuance increases over 50% in 2019



*ASEAN issuance represents 3% of global total, 12% of Asia-Pacific in 2019

© Climate Bonds Initiative 2020

ASEAN Green Finance State of the Market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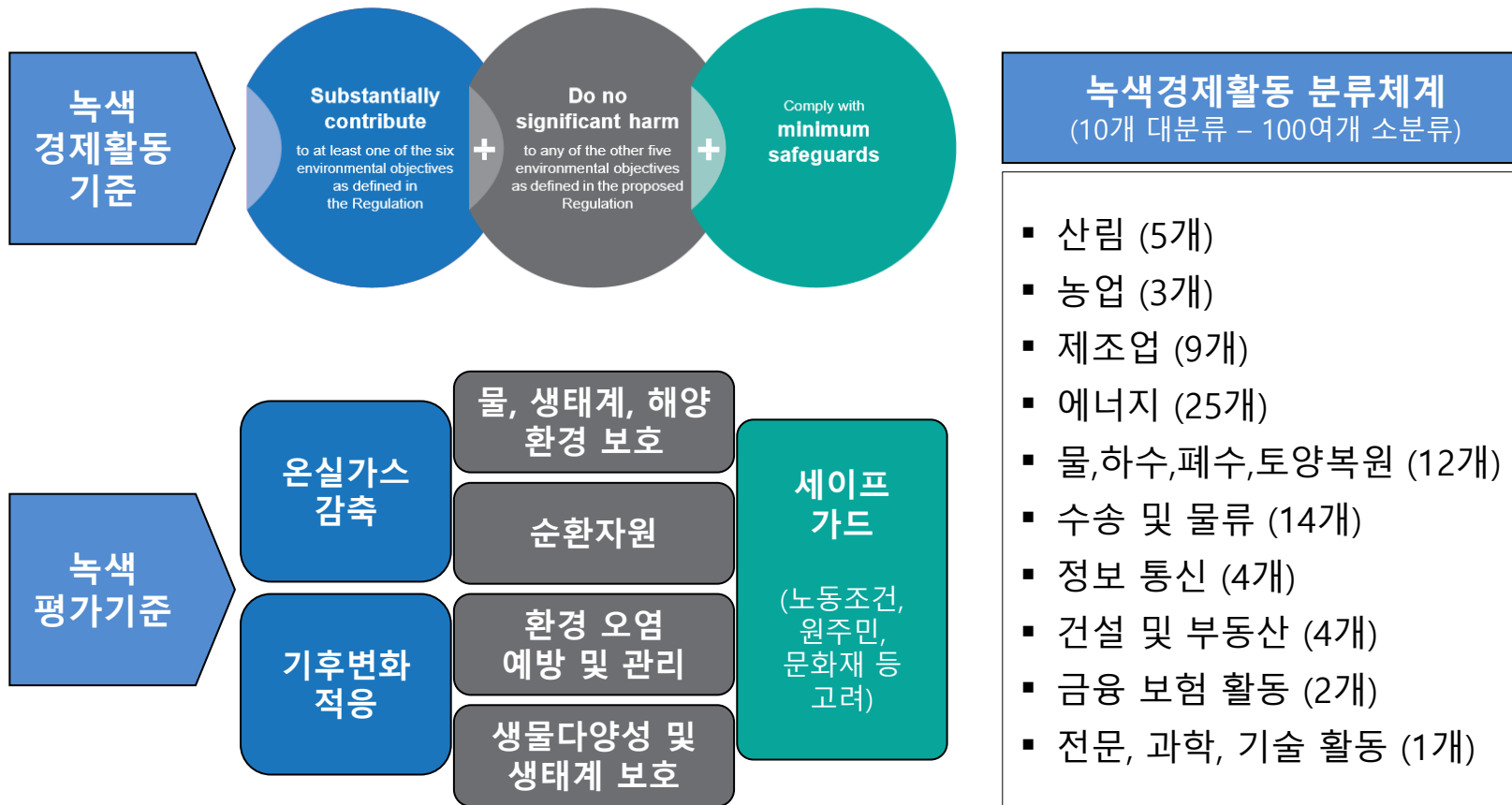
- 2018년 (\$171bn) 대비 2019년 (\$259bn)으로 대폭 성장
- 2/3의 자금이 건물과 에너지 부문에 투자됨
- 아세안국가에서도 급성장
 - 2019년 말 현재 발행규모: \$13.4bn
 - 전세계 비중은 2018년(1%)에서 2019년(3%)로 증가



[부록] Green Taxonomy – 녹색투자의 범위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유럽연합 금융안정국은 녹색경제활동 분류체계와 녹색평가 기준을 법제화하기 시작했으며, ISO 및 전세계가 각국에 맞는 Taxonomy를 개발하기 시작함

EU Green Taxonomy – 녹색경제활동 분류체계 및 녹색평가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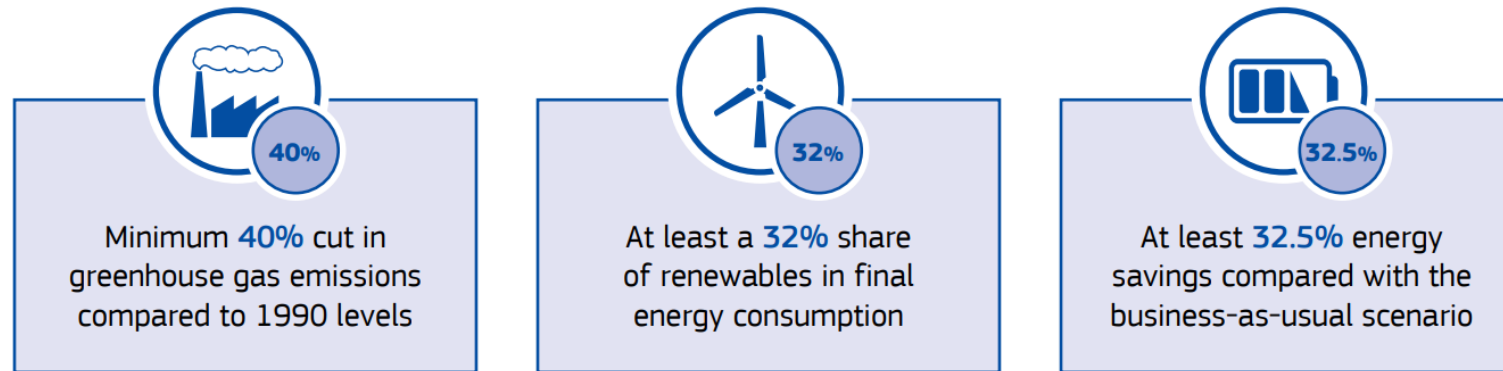


[부록] EU Taxonomy – 실물경제의 녹색화 (그린뉴딜)

EU는 2030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175~290 billion의 투자가 필요하며, EU Taxonomy를 통해 모든 경제활동을 녹색과 비녹색으로 나누어 실물경제의 녹색화 유도

EU Taxonomy – Green vs. Non-green vs. Brown

The EU has committed to three ambitious climate and energy targets by 2030:



To make the EU climate-neutral by 2050, Europe needs between €175 to €290 billion in additional yearly investment in the next decades.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business_economy_euro/banking_and_finance/documents/200108-financing-sustainable-growth-factsheet_en.pdf



3. ESG 리스크 관리

선진 금융기관들은 여신, 프로젝트파이낸싱, 투자, M&A, 채권발행, 언더라이팅 등 모든 금융 활동 과정에서 ESG 리스크를 고려하는 정책과 조직,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음

신한금융그룹 - 환경사회 리스크관리 (모범기준 및 심사절차서)

CASE STUDY

통합적 ESG 리스크관리

신한금융그룹은 지속가능금융을 통해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대출 및 투자 의사결정 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측면의 위험요인을 인식하기 위해 ESG 이슈를 고려한 여신 및 투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ESRM (Environmental & Social risk management policy framework)를 도입하고, 환경사회적으로 중요하고 이슈가 많은 영역을 선정, 관리하는 유의영역관리 정책(Sector Policy)을 제정하며,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위험평가와 관리를 위한 환경사회리뷰(ESRP, Environmental & Social risk review procedure)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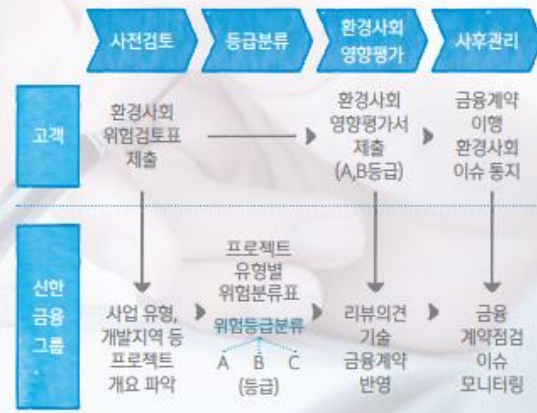
유의영역 선정과 관리

신한금융그룹은 온실가스 배출, 생활권 침해 및 서식지 영향, 산업안전 보건 등을 포함, 환경사회적으로 리스크가 큰 산업이나 영역을 유의영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합니다. 환경사회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큰 영역은 금융 지원을 배제하고,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화석연료 사용과 관련하여 조건부 금융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공사(IFC)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12개 유의영역을 선정하여 금융지원 배제 및 조건부 금융지원 정책을 운용합니다.



환경사회 리뷰

프로젝트 파이낸싱 지원 시, 개발 프로젝트에 의한 환경사회적 영향에 따라 위험수준을 분류하고, 환경사회영향평가 결과를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과 유해 주점업, 대부업체 등 불건전한 업종에 대해서는 여신 취급을 제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신규 요청 시 여신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에 기초한 대상 선정, 위험등급 분류 및 환경사회 영향평가 수행 등의 리뷰를 수행합니다.



[부록] IFC Exclusion List

IFC는 Exclusion List를 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에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IFC Exclusion List

- **호스트 국가 법규 위반 또는 국제협약·조약 위반 관련 어떠한 제품 또는 행위 관련 생산이나 교역**
(의약품, 농약/제초제, PCB류의 오존층 파괴물질, CITES협약상 야생동물 및 관련 제품 등)
- **무기 및 군수품의 생산 또는 교역** (프로젝트 스폰서의 전체 사업중 일부만 해당 분야와 관련된 경우에는 본 규정 적용 X)
- **술 음료 관련 생산 또는 교역**
(맥주와 와인 제외. 프로젝트 스폰서의 전체 사업중 일부만 해당 분야와 관련된 경우에는 본 규정 적용 X)
- **담배 생산 또는 교역** (프로젝트 스폰서의 전체 사업중 일부만 해당 분야와 관련된 경우에는 본 규정 적용 X)
- **도박, 카지노 및 유관 기업** (프로젝트 스폰서의 전체 사업중 일부만 해당 분야와 관련된 경우에는 본 규정 적용 X)
- **방사성물질의 생산 또는 교역** (의료장비, 품질관리·측정장비 등의 구매시 본 규정 적용 X)
- **비결합 석면 섬유 생산 또는 교역** (석면 함유량이 20% 미만인 결합 석면시멘트 판의 구매 및 사용에는 본 규정 적용 X)
- **바다에서 2.5km 이상 길이의 그물을 사용하는 표류어업**
- **강제노동, 위험한 아동노동 등 유해하고 착취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생산 및 활동**
- **원시 열대우림 사용 관련 상업적 벌채**
- **지속가능산림관리 외의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생산 또는 교역**
- **휘발유, 케로신 등 석유화학 제품 등 상당한 규모의 위해화학물질 또는 상업 규모의 위해화학물질 사용 관련 제조 또는 활동**

Source: <http://www.ifc.org/exclusionlist>



4. Collective action: 자발적 지속가능금융 원칙의 제정

선진 금융기관들은 UNEP FI를 중심으로 투자, 보험, 은행 부문의 3가지 지속가능금융 원칙을 제정하며 자발적인 지속가능금융을 독려하고 있음 (책임은행원칙은 9/22 UN총회에서 공식 런칭)

책임투자원칙 (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지속가능보험원칙 (PSI) Principles for Sustainable Insurance	책임은행원칙 (PRB) 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
① 투자 분석 및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ESG에 대한 이슈들을 통합시킨다. ② 소유권 정책 및 행사에 있어 ESG에 대한 이슈를 통합시킨다. ③ 투자대상기업에 ESG에 대한 정보공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한다. ④ 투자산업 내 책임투자원칙들의 수용 및 실행을 증진시킨다. ⑤ 책임투자원칙의 수행에 있어 효율성 증진을 위해 협력한다. ⑥ 책임투자원칙의 수행에 관한 각자의 활동과 진전상황을 각각 보고한다.	① 보험 비즈니스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ESG에 대한 이슈들을 통합시킨다. ② 고객 및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함께 ESG 이슈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리스크를 관리하며, 솔루션을 개발한다. ③ 정부, 감독기관 및 기타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사회 전반에 걸친 ESG 이슈 관련 활동을 촉진한다. ④ 위의 원칙의 실행과 관련한 진척사항을 정기적으로 대외에 투명하게 공개한다.	① 비즈니스 전략을 SDGs, 파리기후협정 및 관련 국가·지역 프레임워크와 같은 개인 니즈와 사회 목표에 따라 일치시키고 기여한다. ② 경영활동, 상품서비스가 사업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리스크를 관리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증대시킨다. ③ 거래상대방과 고객들과 함께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한 공유 번영을 창출하는 지속가능 활동을 촉진하고,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④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진취적이고 책임 있게 대화하고 협력한다. ⑤ 중요한 영향과 관련된 공개적 목표를 공개함으로써 효과적 거버넌스와 책임은행 문화를 통해 이 원칙을 실행한다. ⑥ 독자, 협력적으로 이 원칙의 실행을 주기적 검토하며 사회 목표에 대한 우리의 긍정·부정적 기여를 공개한다.



Transition Risks: - 13.16%

2°C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정책 강화시 기존 경제 활동이 축소됨

Physical Risks: - \$1.2 trillion (한국 GDP -11.68%)

2°C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전환이 늦어지면 경제 활동의 위험이 증가함

Green Revenue: x 6 times

1.5°C 시나리오하에서 녹색 매출은 3°C 보다 6배가 큼



PART 2. Top-down

-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회의
- 금융안정위원회와 TCFD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 EU의 지속가능금융 액션플랜
-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관의 녹색금융 네트워크, NGFS

Top-down
지속가능금융의 제도화

Risk

**Sustainable Finance
(for Green New Deal)**

Opportunity

Bottom-up
금융기관들의 지속가능금융



UNEP
FINANCE
INITIATIVE



Quiz.

다음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의 '제3장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중 '제3절 신용위험가중자산의 산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음의 ()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은행은 담보로 인정되는 상업용부동산·주거용주택에 대한 세금 등
선순위 발생이 가능한 경우와 ()문제로 인한 부담 등을 모니터링 할 것”

BASEL II. 510항

“**MUST** appropriately **monitor the risk of environmental liability** arising in respect of the **collateral**, such as the presence of toxic material on a property”

우리나라토양오염 현황

- 환경부의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65개소, 대책기준 초과지점 43개소 발견
- 서울시 '15년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329개 샘플링 조사지역중 16개 지역이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 토양오염 대책기준 초과시 토양오염 복원 의무 발생 → 부동산 담보 가치 하락



BASEL과 환경 리스크, 논의의 방향

지속가능성 분야의 전문가들은 BASEL의 Pillar 1(신용·운영리스크상 환경리스크 관리) 이외에도 Pillar 2(내부자본적절성평가, 감독평가), Pillar 3(정보공개)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UNEP FI & University of Cambridge – Stability and Sustainability in Banking Reform

Pillar 1	Pillar 2	Pillar 3
Minimum Capital Requirements	Supervisory Review Process	Market Discipline
Additional/Refined Capital Basis - Liquidity Coverage Ratio (LCR) - Net Stable Funding Ratio (NSFR) - OTC Derivatives Charge - Quality and Level of Capital - Leverage Ratio - Capital Conservation Buffers - Countercyclical Buffers - Enhanced Loss Absorption Clause (Write-Off or Debt Conversion)	Supervision (Dialogue) - Firm-wide Corporate Governance - Managing Risk Concentrations - Alignment of LT Incentives - Sound Compensation Practices - Supervisory Colleges - <u>Capital (ICAAP)</u> - Firm-wide Risk Management - Valuation Practice, Stress Tests - <u>Supervisory Review Evaluation Process (SREP)</u> - Capital - Governance	<u>Additional/Enhanced Disclosure</u> - Risk Management • Market • Credit • Operational - Regulatory Capital components - Detailed Reconciliation of Capital - Regulatory Capital Ratios - Securitisation Exposures

The management of certain transaction-specific environmental risks on credit and operational risks is already required by paragraph 510

ICAAP and SREP can be used to assess portfolio risk exposures to systemic environmental risks

Standardised or harmonised disclosure of information about exposure to, and management of, systemic environmental risks could form part of additional or enhanced disclosure requirements

<Pillar 2> 향후 ICAAP와 SREP에서 체계적 환경리스크에 대한 포트폴리오 리스크 노출을 평가하기 위해 활용

* ICAAP: Internal Capital Adequacy Assessment Process/

* SREP: Supervisory Review Evaluation Pro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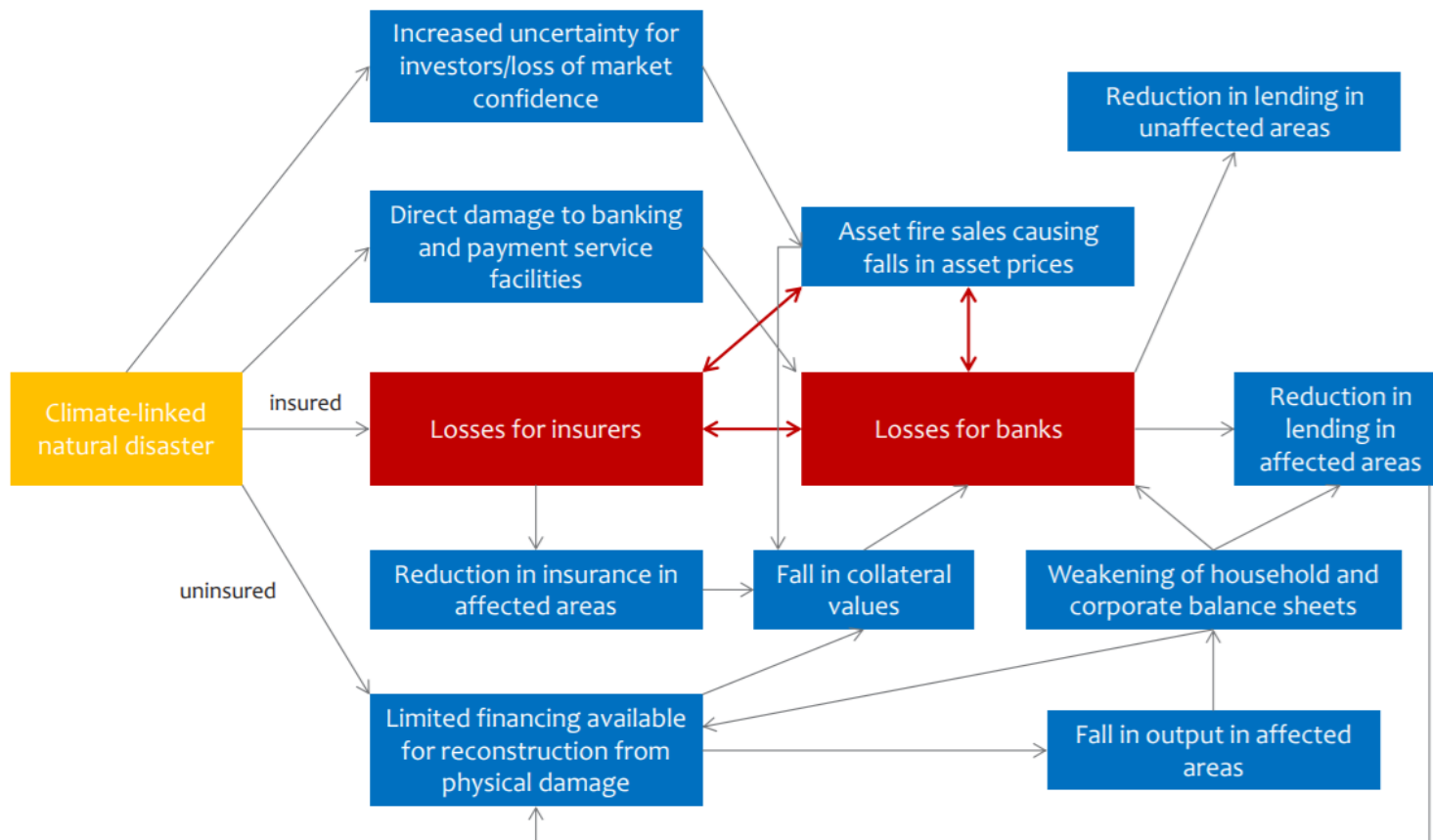
<Pillar 3> 향후 체계적 환경리스크의 노출과 관리에 대한 표준화된 정보공개를 추가 또는 강화된 정보공개 요건의 한 부분 형성



기후변화: 금융기관의 재정건전성, 중앙은행의 금융안정성 이슈

Bank of England의 Mark Carney 총재는 기후변화가 사회에 경제적 피해를 입히며, 이 과정에서 보험사와 은행들의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중앙은행과 감독기관들의 역할을 주장하기 시작함

Bank of England – 금융기관, 중앙은행, 감독기관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



Source: Bank of England, Staff Working Paper No. 603,, 2016, *Let's talk about the weather: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central banks*



UNEP
FINANCE
INITIATIVE



[참고] 지속가능금융의 전도사, Mark Carney

Mark Carney 총재는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 역임중 BIS의 글로벌 금융시스템 위원장, FSB 총재, Bank of England 총재를 역임하며 금융 관점에서 기후변화의 리스크 관리를 제도화하는데 기여함



- Governor of the **Bank of England**, 2012-now
- Board Member of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Chairman of the Basel-based **Financial Stability Board**, 2011-2018
- Chairman of the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Committee on the Global Financial System, 2010-2012
- Governor of the Bank of Canada, 2008-?
- Goldman Sachs



G20 지속가능금융 스터디그룹 (Co-chair: Bank of England, 중국인민은행)

2016년 2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G20 녹색금융 스터디그룹(현재 지속가능금융 스터디그룹)을 발족시켰으며, 이를 전후로 많은 국가들이 국가 지속가능금융 로드맵을 수립중임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지속가능금융스터디그룹 발족 (2016)

G20 Financial Leaders Commit to Exploring Green Finance Options

PRESS RELEASE | February 27, 2016

Shanghai, 27 February 2016 -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s governors of the G20 major economies committed today to exploring ways of greening the US\$90 trillion of investments required over the next 15 years to achieve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limate objectives.

Under the Chinese Presidency, G20 launched the Green Finance Study Group, co-chaired by China and the UK, to mobilize private capital for green investments.



Xinhua News Agency

Shanghai, 27 February 2016 -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s governors of the G20 major economies committed today to exploring ways of greening the US\$90 trillion of investments required over the next 15 years to achieve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limate objectives.

Under the Chinese Presidency, G20 launched the Green Finance Study Group, co-chaired by China and the UK, to mobilize private capital for green investments.

Addressing the G20 finance ministers and governors in Shanghai,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Executive Director Achim Steiner said, "Financing the green transition is essential for sustained prosperity over the long-term, and also to address the immediate concerns of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to promote growth, employment and financial stability."

UNEP is acting as the secretariat for the Green Finance Study Group, building on its two decades of experience in the realm of green finance.

Since 1992, the UNEP Finance Initiative has brought together over 200 public and private financial institutions to catalyze change in the finance sector. Its Portfolio Decarbonization Coalition currently

Source: <http://www.unep.org/newscentre/g20-financial-leaders-commit-exploring-green-finance-options>

MEDIA CONTACTS

- Michal Szymanski,
UN Environment News
unepnewsdesk@unep.org
+254 715876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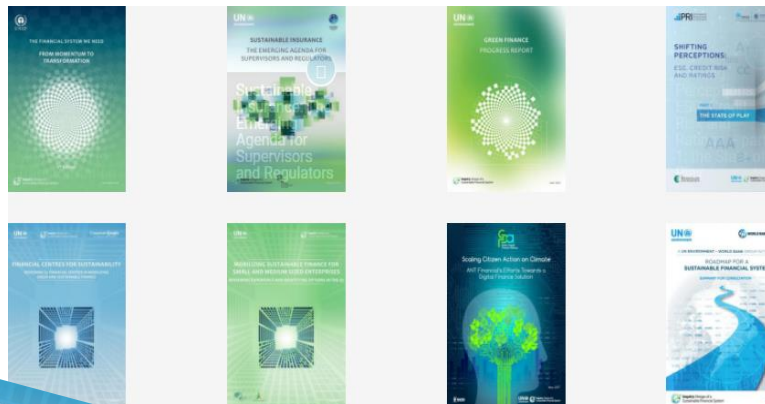
TOPICS

- Finance
- Green
- Sustainable Dev

RELATED

G7은
'지속가능금융 허브'
논의중

UNEP Inquiry 국가 지속가능금융 로드맵 개발



지속가능금융 국가 로드맵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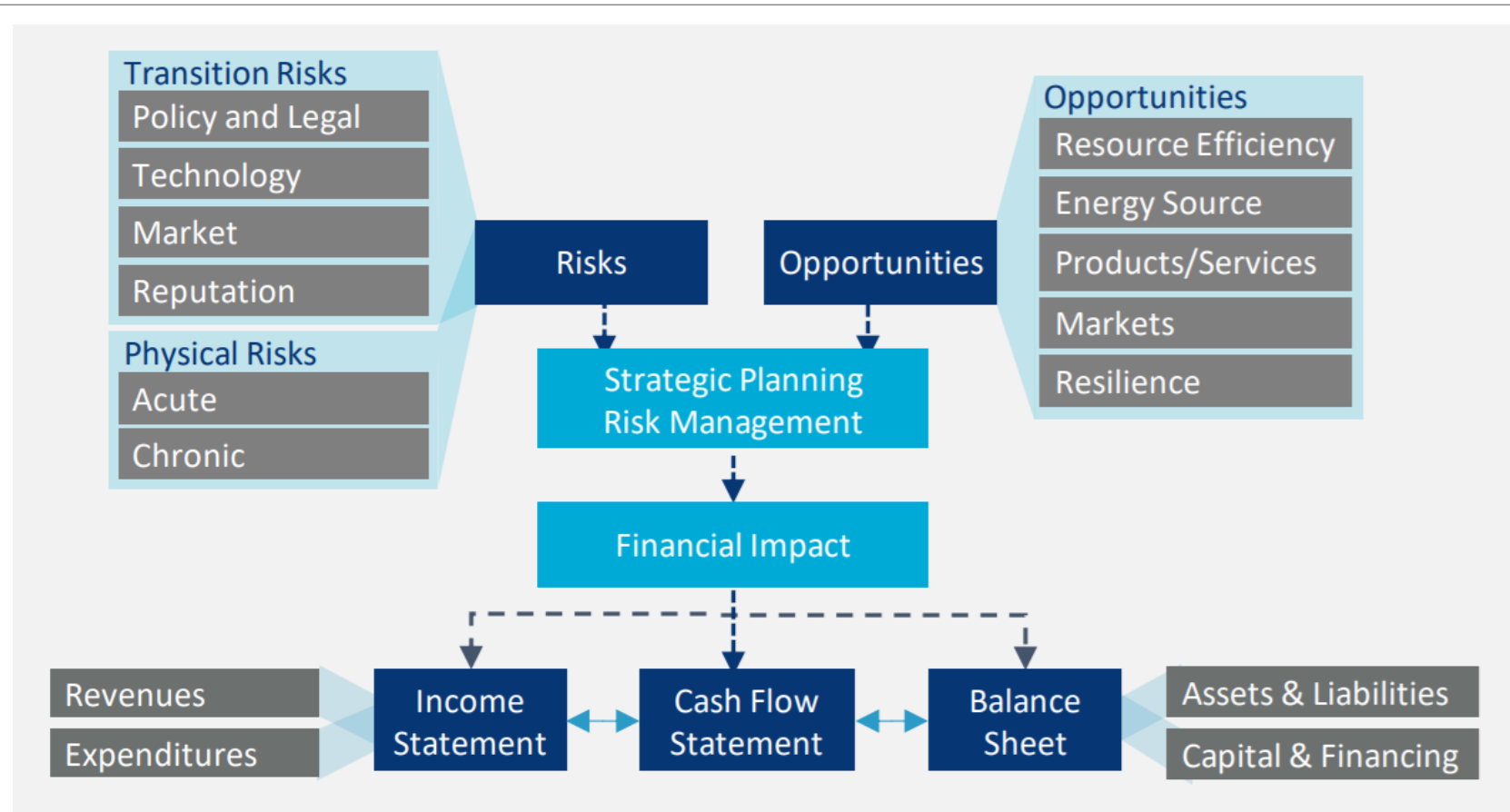
EU,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미국, 콜롬비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남아공, 케냐, 몽골 등



FSB의 TCFD (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G20의 요청에 따라 2017년 6월 FSB TCFD는 금융기관이 보다 나은 기후변화 정보를 토대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비금융산업의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를 요구함

FSB의 TCFD – 기후 시나리오에 따른 기업.포트폴리오 단위의 재무 리스크 분석 및 공시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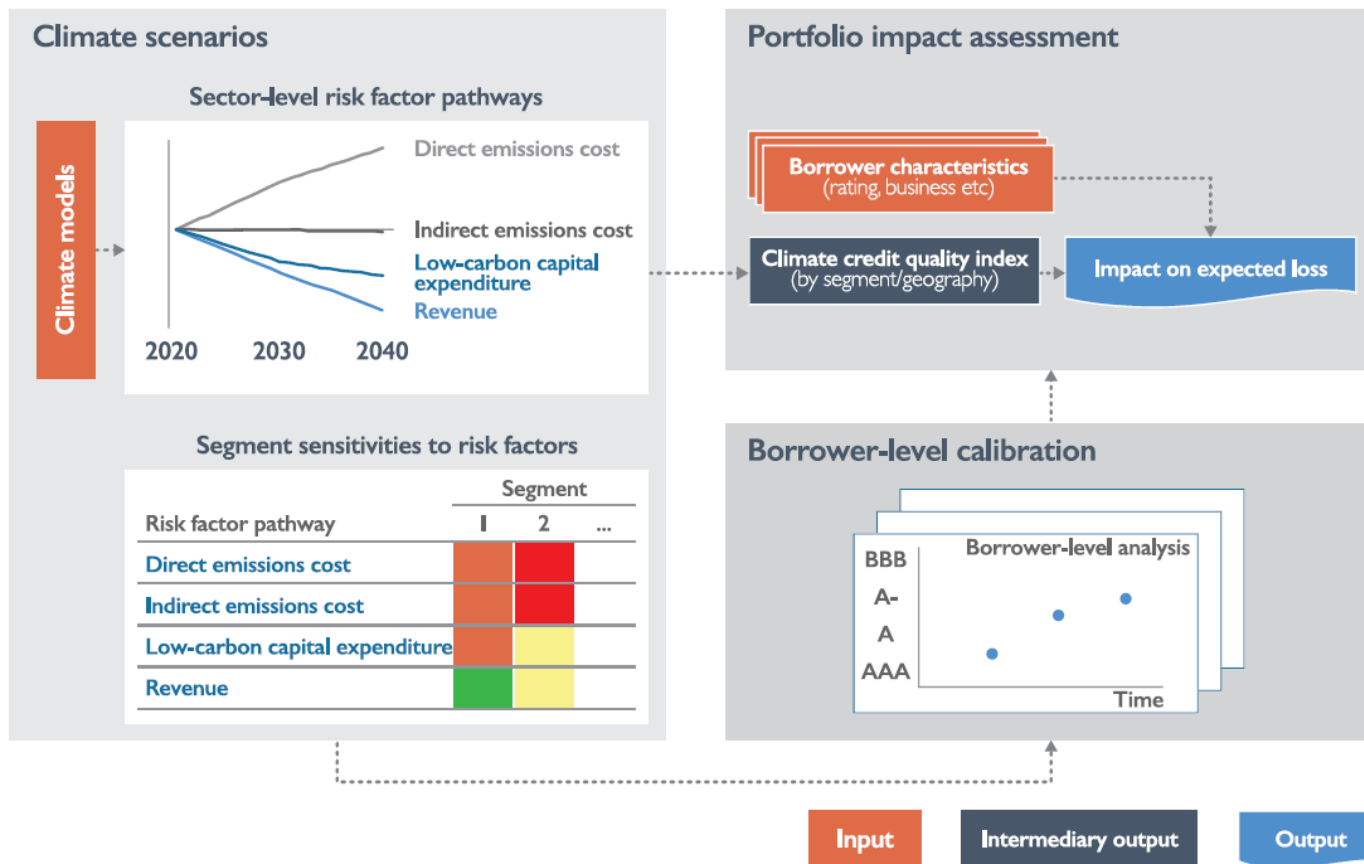
Source: Financial Stability Board,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June 2017



[참고] UNEP FI의 TCFD 파일럿 프로젝트

2017~2018년 UNEP FI와 16개 선진은행들은 TCFD의 은행 여신 프로세스에 통합 모델을 만들었으며, 현재 은행, 보험, 투자기관의 TCFD 실행 모델 개발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중

UNEP FI의 TCFD 파일럿 – 은행 여신절차에 기후시나리오에 따른 업종·기업 차원의 리스크 관리 통합



Source: UNEP Finance Initiative, *Expanding Our Horizons: Assessing credit risk and opportunity in a changing climate: Outputs of a working group of 16 banks piloting the TCFD Recommendations – Part I: Transition-related risks & opportunities*, April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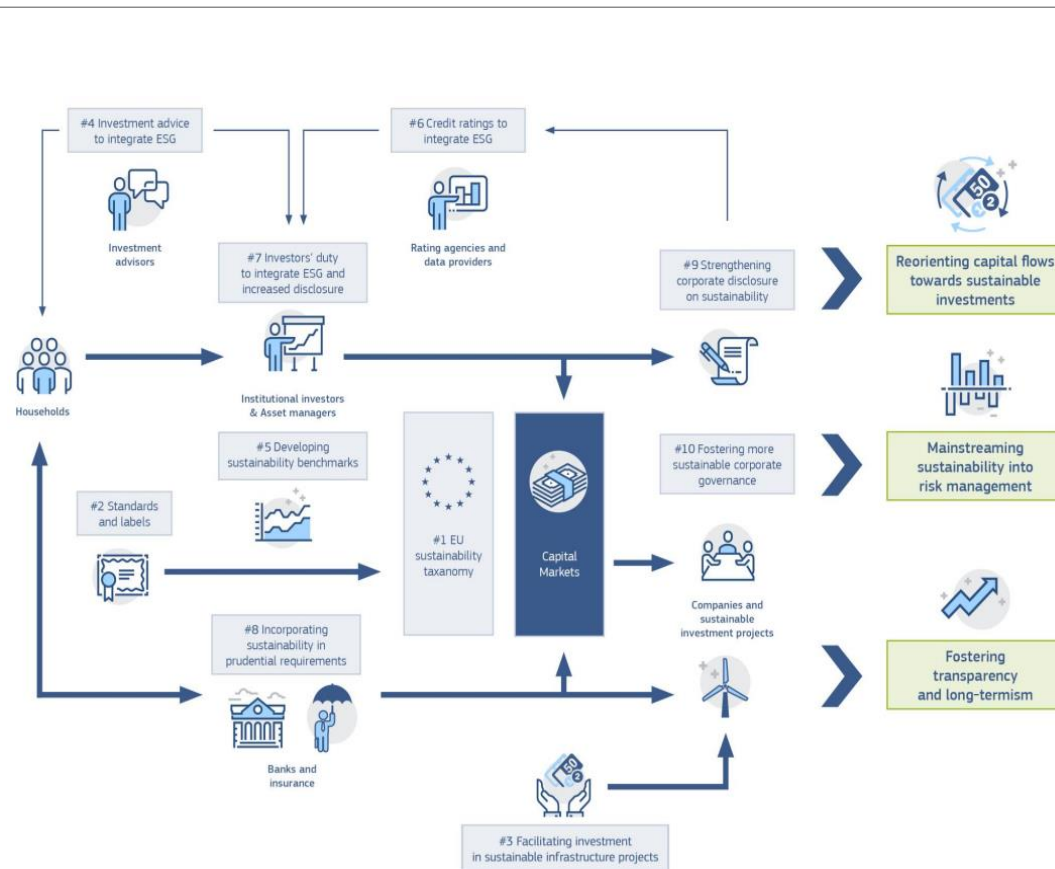
UNEP
FINANCE
INITIATIVE



EU 지속가능금융 액션플랜 (법·제도 패키지)

EC 금융안정국은 2018년부터 지속가능금융 관련 투자촉진, 리스크 관리, 투명·장기적 문화 촉진의 3대 목표를 위한 10가지 법·제도 패키지를 도입중임

EU Sustainable Finance Action Plan – 3대목표를 위한 10가지 법·제도 패키지



- ① 지속가능투자 분류체계 구축
- ② 녹색금융상품을 위한 표준 및 라벨 제도도입
- ③ 지속가능 인프라 사업 투자 촉진
- ④ 투자자문 제공시 지속가능성 통합
- ⑤ 지속가능성 벤치마크 지수 개발
- ⑥ 신용평가, ESG 리서치에 지속가능성 통합
- ⑦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명확화
- ⑧ 기후 리스크를 고려한 은행·보험 관련 금융감독 (EU의 Capital Requirement Regulation and Directive내 은행의 자기자본요건 개선 검토)
- ⑨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강화 및 IFRS 표준 연계 검토
- ⑩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금융기관 거버넌스 촉진



NGFS (Network of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NGFS는 2017년말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관 주도로 설립됐으며, 기후 리스크가 국가와 금융회사의 금융안정성,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권고안과 가이드를 발표

NGFS 6대 권고안 – 기후 리스크를 금융안정성, 금융감독, 투자포트폴리오, 정보공시체제에 반영할 것

- 목표: 기후환경 리스크 메인스트림화
- 방식: 기후변화 리스크를 금융 건전성 감독에 포함, 정보공시 요구 등
- 참여기관:
 - 66개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관 (한국은행 포함)
 - IMF, 국제결제은행(BIS),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12개 옵서버

2019년 6대 권고안

- ①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금융안정성 모니터링 및 세부 금융감독에 반영
- ② 지속가능성 요소를 포트폴리오 관리에 반영
- ③ 정보격차 좁히기
- ④ 인식과 지적역량 구축 및 기술지원과 지식공유 장려
- ⑤ 체계적이고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후와 환경 관련 정보공시체제 구축
- ⑥ 녹색 경제활동 분류체계 지원

2020년 5대 권고안 (+1)

- ① 감독기관은 기후환경 리스크가 자국 경제 및 금융섹터에 어떻게 전이되고, 금융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현실화될지 파악
- ② 기후환경 리스크 적정 대응을 위해 명확한 전략과 내부 조직을 마련하고 적정한 자원을 배정
- ③ 금융회사의 기후환경 리스크 노출도와 예상 피해 분석
- ④ 기후환경 리스크와 관련 감독기관의 기대사항을 설정하여 해당 리스크에 대한 건전성 감독 기조를 금융회사들이 투명하게 이해하게 하기
- ⑤ 다양한 규제 틀을 활용해 금융회사들의 기후환경 리스크를 적정 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

* Pillar 1, 2 자본 요건 기준에 기후환경 리스크 반영 방안 논의



[참고] NGFS의 6대 권고안

○ 권고안 1.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금융안정성 모니터링 및 세부 금융감독에 반영 ('Integrating climate-related risks into financial stability monitoring and micro-supervision')

- 금융시스템의 기후 관련 재무적 리스크 평가

- 물리적 리스크 및 전환 리스크 채널을 mapping 후, 금융제도의 위험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주요 지표를 채택
- 세계 각국의 미래 상황을 포괄하는 데이터 기반 시나리오 (data-based scenario)를 기반으로 금융 시스템 전반에 걸친 기후리스크 분석
- 기후변화의 물리적 및 전환 영향이 거시경제 예측 및 재정적 안정성 모니터링에 어떻게 포함될 수 있는지 고려

- 기후 관련 리스크를 아래 사항을 포함하는 **건전성 감독**에 반영

- 금융회사에서 기후 관련 위험이 이사회 단위에서 이해되고 논의되며, 리스크 관리 및 투자결정에서 고려되고, 회사 전략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여
- 금융회사가 기후 관련 재무위험에 대한 식별, 분석, 관리 및 공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여
- 향후 금융회사에게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감독 지침 수립**

○ 권고안 2. 지속가능성 요소를 포트폴리오 관리에 반영 ('Integrating sustainability factors into own-portfolio management')

- 중앙은행의 포트폴리오 운영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며 중앙은행의 자금, 연금금 및 준비금에 지속가능성 요소를 반영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을 권장함
- 자기 포트폴리오 관리를 넘어 통화정책에도 기후 리스크를 포함한 ESG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함

○ 권고안 3. 정보격차 좁히기 ('Bridging the data gaps')

- 공공기관은 기후리스크평가(Climature Risk Assessment)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야 하며 가급적이면 오픈소스로 제공할 것을 권장
- 현존하는 데이터 격차 해소를 위해 이해당사자간의 공동워킹그룹 결성 권장

○ 권고안 4. 인식과 지적역량 구축 및 기술지원과 지식공유 장려 ('Building awareness and intellectual capacity and encouraging technical assistance and knowledge sharing')

- NGFS는 중앙은행, 감독기관 및 금융기관이 자신의 이해관계자에게 기후변화 리스크 및 기회를 설명할 수 있는 자체역량을 향상시키기를 권장
- 개발도상국의 인식과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기술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장

○ 권고안 5. 체계적이고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후와 환경 관련 정보공시체제 구축 ('Achieving robust and internationally consistent climate and environment-related disclosure')

- NGFS 구성원들은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대한 지지를 공동으로 이행하며 공공기관 및 공공채권의 정보를 TCFD 권고안에 따라 공개할 것 권장

○ 권고안 6. (녹색)경제활동 분류체계 지원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a taxonomy of economic activities')

- 정책입안자는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들로 하여금 (녹색경제) 분류법을 개발해 경제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하는 경제활동과 기후환경리스크에 노출된 경제활동의 분류 권장
- 분류법은 금융기관의 기후환경리스크 평가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자산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이해를 돕고 파리기후협정에 부합하는 저탄소경제 투자를 위한 자본동원을 지원할 수 있음



NGFS – 금융감독기관을 위한 기후환경 리스크관리 가이드

NGFS는 2020년 5월 금융감독기관을 위한 기후환경 리스크관리 가이드를 발표.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재정건전성 감독시 기후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함

NGFS, *Guide for Supervisors: Integrating climate-related and environmental risks into prudential supervision*, May 2020

2020년 5대 권고안 (+1)

- ① 감독기관은 기후환경 리스크가 자국 경제 및 금융섹터에 어떻게 전이되고, 금융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현실화될지 파악
- ② 기후환경 리스크 적정 대응을 위해 명확한 전략과 내부 조직을 마련하고 적절한 자원을 배정
- ③ 금융회사의 기후환경 리스크 노출도와 예상 피해 분석
- ④ 기후환경 리스크와 관련 감독기관의 기대사항을 설정하여 해당 리스크에 대한 건전성 감독 기초를 금융회사들이 투명하게 이해하게 하기
- ⑤ 다양한 규제 툴을 활용해 금융회사들의 기후환경 리스크를 적정 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

- 감독기관의 기후환경 리스크 관리 역량 마련을 위해 **이사회**의 참여, **기후환경 리스크 관련 전략 수립**, **효과적인 조직 체계 마련**이 필요함
 - 전담조직, 조직 내부 네트워크, 거점(hub and spokes) 방식 등 구체적 조직형태와 사례 제시
- 각 감독기관은 **(1) 지배구조, (2) 전략, (3) 리스크 관리, (4) 시나리오 분석 및 스트레스 테스트, (5) 정보 공개** 관련 기대사항을 발굴하고 금융회사와 의사소통 필요
 - 금융회사 임원레벨에 기후환경 리스크 관리 책임 부여
 - 기후환경 리스크 대응 노력 (전략, 실행계획, 평가지표 마련 등)
 - 금융회사 자체 시나리오 분석,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 **리스크 노출도 분석**
 - 전환+물리적 리스크 통합적 분석
 - Granularity: 국가, 기업, 시설, 공급망 레벨의 분석
 - 다양한 방법론을 접목시켜 기후환경 리스크 전이 채널, 영향 심화분석

● 규제 툴박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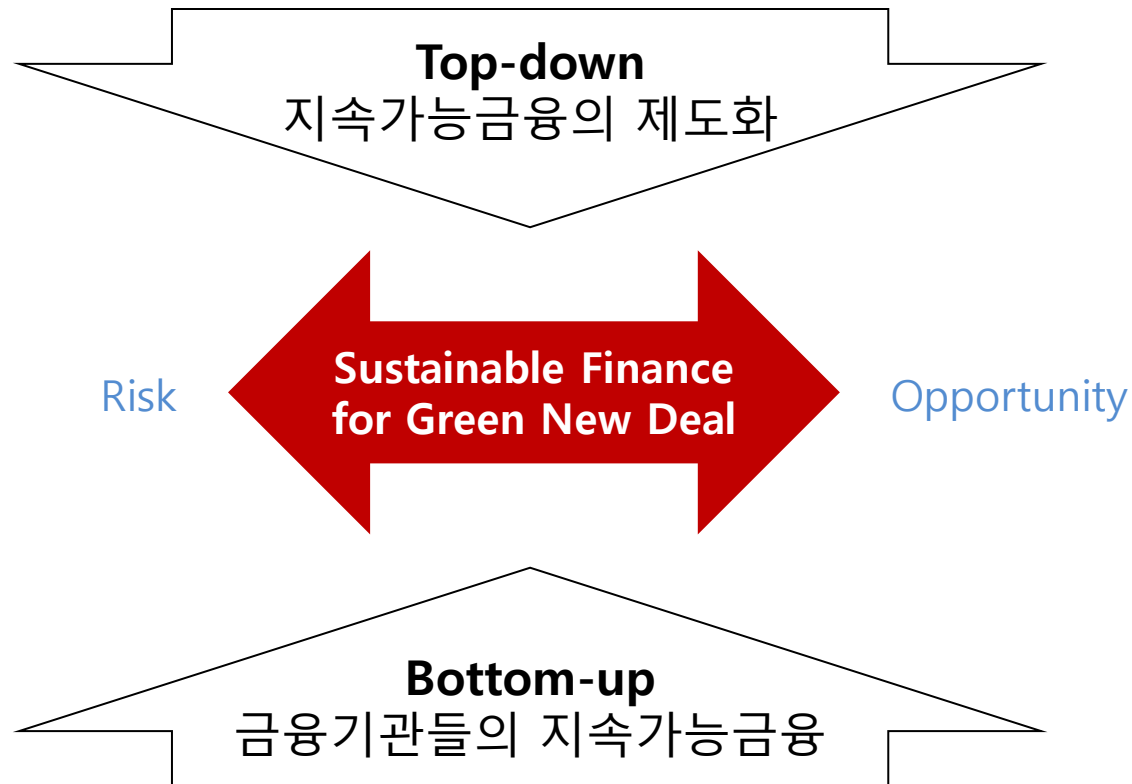
- **은행감독핵심준칙**
(Basel Core Principles for Effective Banking Supervision)
-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보험핵심준칙**
(IAIS ICPs, Insurance Core principles)



UNEP
FINANCE
INITIATIVE



PART 3. SF for Green New Deal



UNEP
FINANCE
INITIATIVE



1. 한국녹색투자금융공사 설립 및 그린뉴딜 국민채권 발행

민간의 그린뉴딜 사업투자 촉진 및 주요 인프라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한국녹색투자금융공사(가칭)’ 설립 필요 (부록3 참고)

-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특수 목적을 가진 **그린뉴딜 투자금융 민관협력 체계** 필요
 - EU는 약1,350조원 규모의 그린딜 투자계획 발표. 이 중 50%의 EU재원을 그린딜 사업 보증에 활용. 유럽투자은행(EIB)가 민간의 그린딜 투자 건인
 - 한국(1.7조달러)과 EU(16.8조달러)의 GDP 규모 감안시 한국도 135조원 규모 이상의 민관협력 그린뉴딜 자원 확보 필요
- **그린뉴딜 국민채권 발행 (연15조원X10년)**, 사업 개발·투자 지원 등



2. 그린뉴딜 사업에 대한 그린워싱 방지 및 투자 촉진 방안

그린뉴딜 사업의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적절한 사업유형 및 환경기준을 포함한 **한국형 Green-taxonomy** 개발 필요

- EU, 국제표준화기구 등은 녹색투자 촉진을 위해 Taxonomy 도입
 - 환경부는 산림, 농업, 산업, 에너지, 환경인프라, 건물, ICT 등을 포함한 K-Taxonomy 개발중

그린뉴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①**배출권거래제 3기의 성공적 도입 (배출권가격 유지)**, ②**기업·국민의 투자세액공제**, ③**보증재원 확충** 필요

- **(Pricing)** 배출권거래제 3기('21-'25)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로 배출권 가격이 유지되면 그린뉴딜 사업에 대한 투자니즈 확대 등
- **(Investment tax credits)** 기업과 국민이 그린뉴딜 사업 투자시 일정기간 투자세액 및 소득공제 혜택 제공 (예: 1인당 연700만원) **(부록4 참조)**
- **(Guarantee)** 승수효과가 높은 보증재원 확충 (예: 연2조원X5년)
 - 5년간 10조원의 보증재원 제공시 6배인 60조원의 승수효과가 있음



UNEP
FINANCE
INITIATIVE



[참조] 미국의 주요 재생에너지 정책

정책	설명	비고
투자세액공제 (Investment Tax Credit)	투자금액(CAPEX)에 대해 일정비율만큼 세액공제	태양광, 소형풍력(100kW 미만) 등에 대해 10-22% (2022년까지)
생산세액공제 (Production Tax Credit)	풍력 발전량 기준 kWh당 1-2센트 세액공제 (최초 10년간)	착공시점에 따라 공제액 상이 (2017년 1.9센트, 2018년 1.4센트, 2019년 1센트, 2020년 1.5센트)
수정가속상각 (MACRS: Modified Accelerated Cost Recovery System)	재생에너지 자산에 대해 상각기간 5년 적용	2023년 1월 1일전까지 투자금에 대해 100% 보너스 감가상각 적용



UNEP
FINANCE
INITIATIVE



3. 그린뉴딜-녹색금융의 민관 협력체계 강화

민관 협력체계를 공식화·강화하여 그린뉴딜 사업정보를 공유하고,
민간의 참여를 위한 녹색투자, 녹색금융 촉진

- 5대금융그룹-정책은행-관계부처(기재부,금융위,환경부,산업부,국토부,복지부,금감원등)간 **그린뉴딜·녹색금융 협력 양해각서 체결 및 녹색금융포럼 발족**
- 이외에도 보험사, 연기금,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의 **자발적 참여** 유도



4. 국제기준에 맞춘 녹색금융 제도화 및 선진화 촉진

최근 3~4년간 녹색금융이 국제결제은행(BIS),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금융안정위원회(FSB), 금융시스템녹색화네트워크(NGFS) 등에서 제도화되고 있어, 우리 금융이 **국제표준을 준수하도록 지원** 필요

- 국제기준에 맞춘 녹색금융 모범규준·가이드·정책 개발
→ 정책은행에 선보급 → 전금융권에 단계적 확대 적용 (**부록5 참조**)
 - 내용: 기후환경 리스크 관리(기후변화의 재무영향 분석,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강화), 녹색투자(그린텍소노미 활용, 그린인프라 투자, 녹색채권 등), 기후관련 재무정보공시 강화 등
- 범부처의 녹색금융 활성화 정책 개발 및 이행 (**부록6 참조**)



감사합니다.



Contact: 임 대 응

한국대표, **UNEP Finance Initiative**

Dae-Woong.LIM@UN.org

010 3211 0430

